

2022년 국토교육 동아리
활동수행보고서
(문화재지킴이)

공공디자인과 코딩으로
열어가는 국토교육

2022년 10월

중앙중학교

I. 활동계획

-국토와 행복한 삶

: 역사와 자료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유함.

-과거와 미래의 만남

: 서울의 과거와 서울의 미래를 연결해 오늘날의 서울을 보다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함.

-국토교육의 활성화

: AI-SW교육을 통해 국토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함.

II. 활동내용



<국토발전전시관 방문 및 체험>

정동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에 방문해 우리 국토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고 도시 재생 및 발전의 모습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짐. 국토발전의 역사를 개관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했고, 재건축 및 서울 도심의 도로, 교통, 건물의 구조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삼성 드림클래스 방문 및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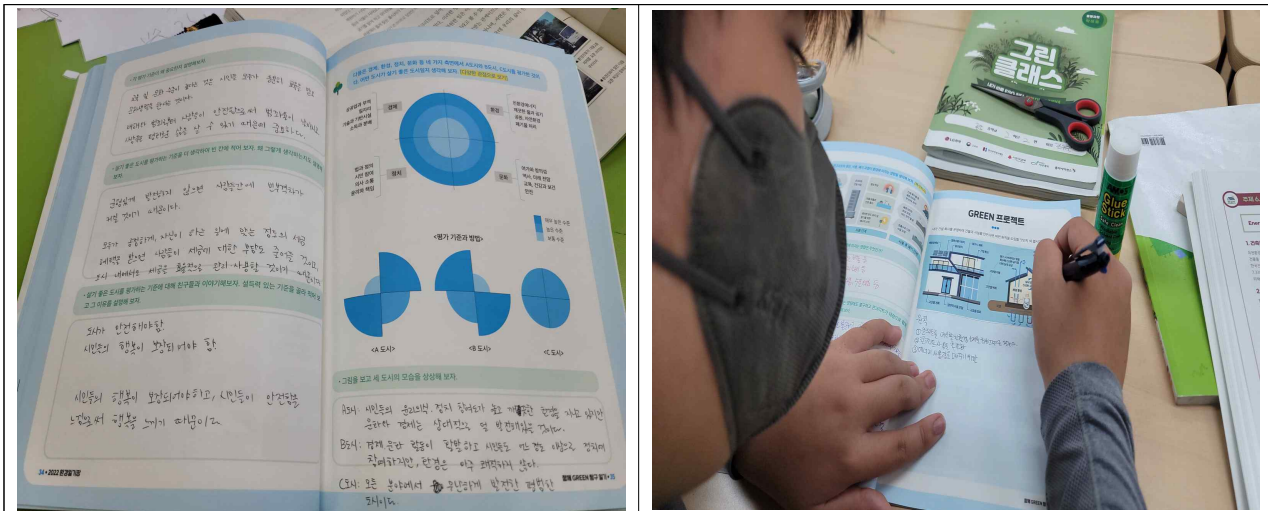
인사동에서 열린 에듀테크 박람회에 참가해 삼성 드림클래스 관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체험하고 도시 및 공간 구현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학생들은 에듀테크를 통해 공간과 거리에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 국토 디자인에 참고할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다.



<성북동 심우장 및 성북구립미술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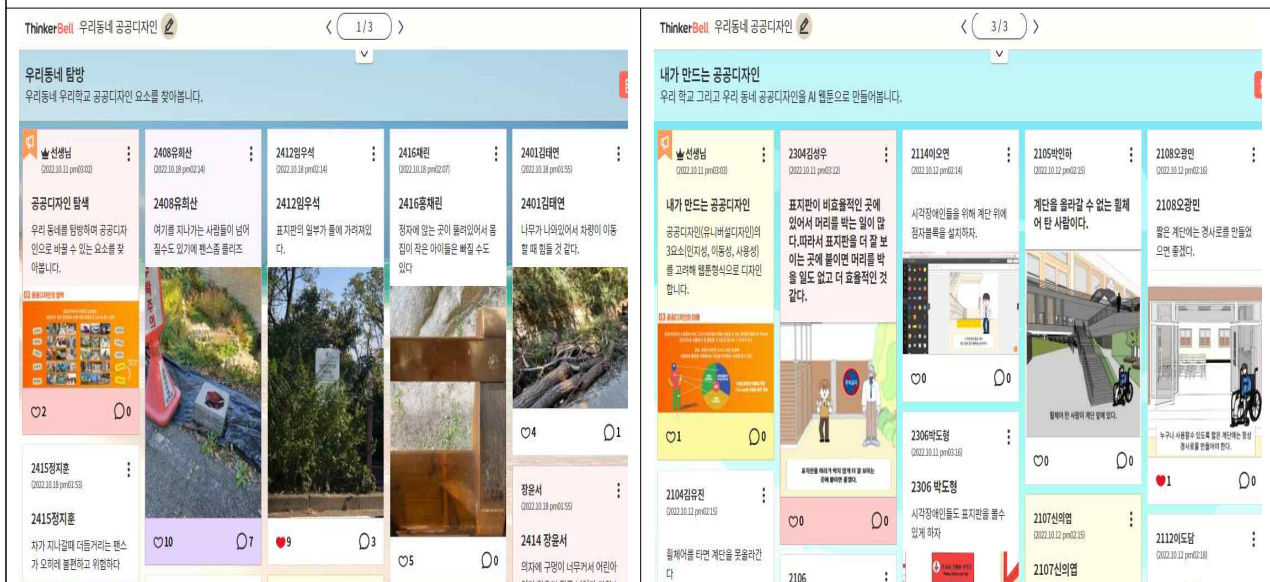
도심의 역사적인 공간(만해 한용운의 심우장)과 사람들의 삶이 기록된 갤러리(성북구립미술관)를 방문해 도심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국토개발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이었다. 성북구 심우장에서 삶의 흔적을 남긴 심우장이 성북동에서 차지하는 모습과 성북구에서 피난 이후의 화가로서 살아간 윤중식 화가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도심과 국토 개발이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장면임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Ⅲ. 활동결과



<그린 프로젝트>

국토교육동아리 활동을 도덕교과 시간에 활동내용을 공유해 확장해서 운영함. LG화학의 그린클래스 강좌를 활용해 도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린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 외 도덕 교과 학생들과도 함께 탄소중립 그린프로젝트를 완성함.



<우리 동네 공공디자인>

답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요소에 맞추어 보다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공공디자인 요소를 발견하고 AI 웹툰을 통해 실제 디자인하는 활동으로 이끌어냄. 동아리 활동 내용을 토대로 동아리 학생과 교과 수업 학생들도 같이 공공디자인 활동에 참여함.



<도시 불평등 해소 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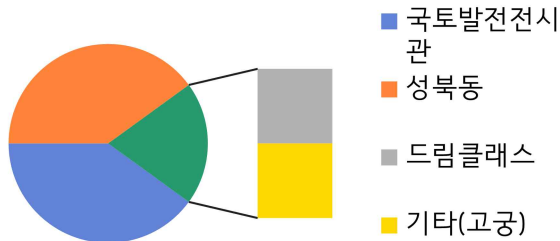
도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코딩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작업으로 학생들이 AI-SW를 활용해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학생들 작품 갤러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pw:2022)	QR 코드 인식 
코딩 프로젝트 (pw:2022)	QR 코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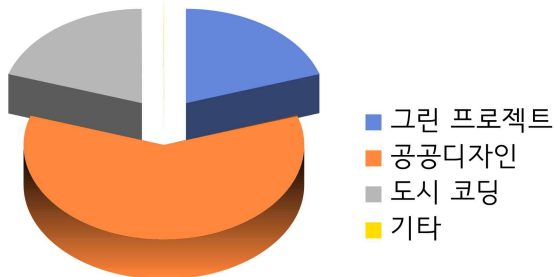
IV. 후기

답사 만족도



국토교육동아리 답사지역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곳은 국토발전전시관과 성북동(심우장과 성북구립미술관)으로 실제 도시 개발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장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옴. 국토발전전시관은 학교에서도 가깝고 전시 내용도 깔끔해서 학생들이 좋아했으나, 국토교육동아리로서 연계된 체험활동 없이 자체적으로 관람 및 체험을 진행해서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다.

활동 만족도



국토교육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만족도 중에서 실제 우리 동네 공간을 AI 웹툰으로 디자인하는 활동이 가장 호응이 좋았고, 그 외 그린 프로젝트와 도시 코딩이 20%씩 만족도 결과를 받았다. 실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공공디자인의 관점(인지성, 이동성, 사용성)에서 살펴보고 AI 웹툰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